

고3 82% “수시, 객관성 떨어져… 정시가 공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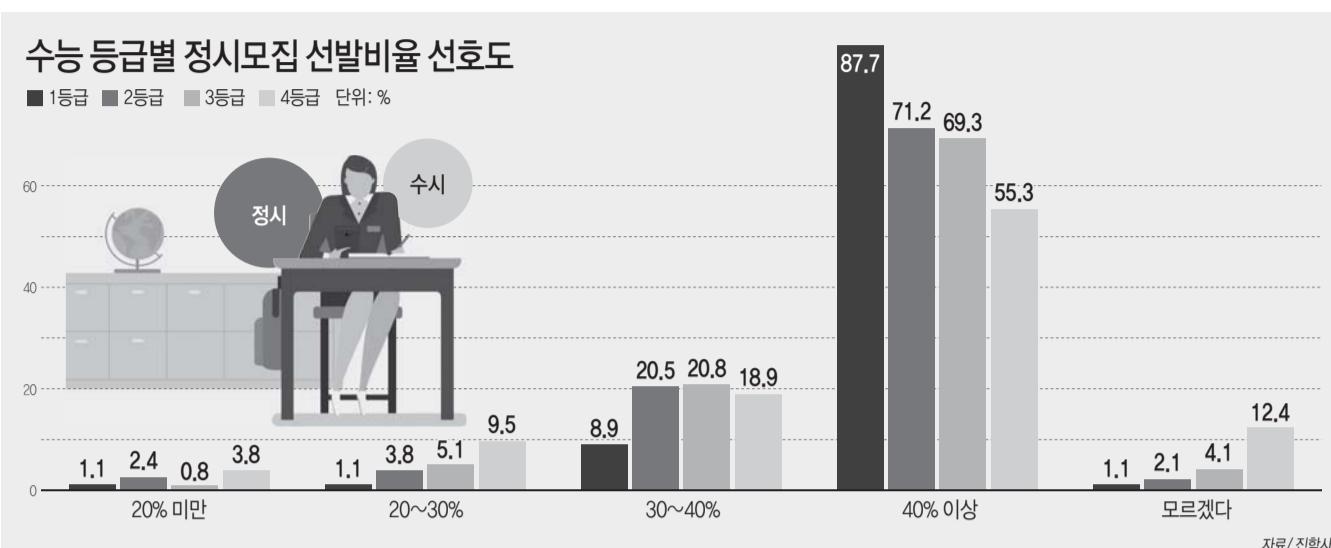
고3, 정시모집 비율 더 높아져야
올해 수시 73%로 매년 비율 올라
수험생 입장 반영, 제도 개선해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0명 중 8명은 대입 수시모집보다 정시모집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치러지는 수시모집 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는 지난 1월 고3 학생 1385명을 대상으로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이 공정한 입시에 더 부합하나’라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81.8%(1133명)가 ‘정시’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수시모집이 더 공정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9.5%(132명)에 불과했고, 8.7%(120명)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답한 응



답자의 주관식 답변을 보면, ‘수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없고 학교 간 수준 차이가 있어 불공평하다’, ‘정시는 동등한 조건에서 객관적인 수능 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수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힘든 요소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수시가 정시보다 더 공정하다는 응답자들의 이유에는 ‘정시로는 학생에 대해 점수 밖에 알 수 없다’, ‘정시는 하루 만에 시험으로 결정이 나기에 운이 작용하지만 수시는 3년 간의 꾸준한 노력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학생들은 또 정시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학년도의 경우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6.3%로 대다수(73.7%)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했다.

정시모집의 선발비율이 어느정도가 좋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66.8%(925명)이 ‘40%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능 1,2등급 대상위권 학생들은 물론 수능 3,4등급대 학생들도 정시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수능 1등급대 학생의 87.7%, 2등급대는 71.2%, 3등급대는 69.3%, 4등급대는 55.3%가 정시 선발비율을 정시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 황성환실장은 “입시에서 수시 선발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정시가 더 공정한 입시라고 응답했고, 선발비율 또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험생은 입시제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이해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의 개선 역시 수험생의 입장에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희연 “학종 선발비율 3분의1로 규제해야”

〈학생부종합전형〉

서울시교육감, 학종 개선방안 발표
자소서·수능최저학력 개선 등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수술’을 제안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가 주요 골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운영해 온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결과를 토대로 나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주요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에 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학종 선발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의 학종 선발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2018학년도 학종 선발 비율은 43.3%로, 전국 평균(23.6%)과 비교해 9.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선발 비중은 수시모집 비중(2018학년도 73.7%)이 커지면서 동반 상승했다.

학종 도입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토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지만, 전형에 필요한 과도한 스펙쌓기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등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부 기록을 정규 교육과정내 활동 중심으로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폐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과 독서활동의 범위를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매년 추첨을 통해 대학으로 순환 파견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이 개입이 이뤄지는 자기소개서 역시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폐지를 고려할 것과, 학생들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에 따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거나 비공개하는 대신,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 기재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매년 추첨을 통해 대학으로 순환 파견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올해 60만명 ‘반값등록금’ 증산층까지 확대

소득구간 조정해 증산층 지원 늘려

대학 반값등록금 취지의 국가장학금이 올해 증산층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지난해 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약 60만명의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작년보다 499억원 늘었다.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장장학금의 증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소득구간을 조정해 증산층 지원을 늘렸고,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장학금 수혜자와 지원 단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맞추고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초중등과 대학 교육복지 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용수 기자

천호역 ‘인공 태양’ 뜯다… 선샤인존 마련

세계 최초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 도입
편안함·안락함 주는 휴식공간 될 것



천호역 인공태양조명시스템. /서울시

서울 지하철 천호역에 인공 태양광이 비치는 시민 휴식공간이 생겼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에 지하철역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이 설치된 ‘선샤인존’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선샤인존이 설치된 곳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 중인 원형 광장이다. 이곳에 서서 기둥 위에 설치된 창문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연출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선샤인존은 별도의 운영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하철역 개방 시간 동안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웰빙 조명’으로도 불린다. 일반 조명과 달리 자연광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의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은 일반 조명기구에 비해 생산성, 편안함은 각각 30%, 38% 높이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28%,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

선샤인존 설치로 천호역은 시민들에게 쇼핑 편의성 뿐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

함까지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지난해 7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천호역 상가 개발업체로 선정돼 상가는 복합 쇼핑몰로 리모델링 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을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인공 태양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토대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서울시, 청년 위한 ‘뉴딜일자리 박람회’ 연다

원하는 일 찾아 경력 쌓고 교육도…
참여 후에 민간기업으로 취업 도와

사업 3100명에 대한 채용정보 안내와 현장접수가 동시에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처 등에 대해 1대1 상담으로 체계적인 구직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공채와 공공기관 채용전략에 대한 맞춤형 취업특강도 진행된다. 서울시의 12개 투자출연 기관 인사담당자가 올해 채용설명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많은 청년들이 박람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갖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서울특별시

사업 3100명에 대한 채용정보 안내와 현장접수가 동시에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처 등에 대해 1대1 상담으로 체계적인 구직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공채와 공공기관 채용전략에 대한 맞춤형 취업특강도 진행된다. 서울시의 12개 투자출연 기관 인사담당자가 올해 채용설명회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많은 청년들이 박람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갖고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